

⑦ 연합뉴스 │ < ▷ 다 대통령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알; >

Q



뉴스홈 | 최신기사

이승엽, 위협구에 타격 밸런스 '흔들'

송고시간 | 2008-11-02 21:51











장현구 기자

이승엽, 위협구에 타격 밸런스 '흔들'

(도쿄=연합뉴스) 장현구 기자 = 일본프로야구 이승엽(32.요미우리 자이언츠)이 세이부 라이온스와 일본시리즈 2차전 에서 상대 투수의 잇따른 위협구와 철저한 피해가기에 짜릿한 안타를 신고하는데 실패했다.

이승엽은 2일 도쿄돔에서 계속된 일본시리즈 2차전에서 네 타석에 들어 볼넷 2개, 삼진 2개를 얻는 데 그쳤다. 전날 2타 수 무안타에 볼넷 1개를 얻은 것을 포함, 4타수 무안타에 볼넷은 3개를 얻었고 삼진은 4개를 당했다.



세이부 선발로 등판한 좌투수 호아시 가즈유키는 2회 첫 타석부터 이승엽에게 몸쪽 위협구를 던졌다.

0-0이던 2회 선두 타자로 나온 이승엽을 상대로 볼카운트 1-1에 서 머리 위쪽으로 날아오는 위협구(시속 138km)로 부담을 줬다.

몸쪽에 적극적으로 볼을 붙여 바깥쪽 유인구로 이승엽을 낚겠다 는 일본투수들의 전형적인 볼 배합으로 이승엽은 움찔했으나 이 후 유인구를 잘 골라 볼넷으로 출루했고 1사 2,3루에서 쓰루오 카 가즈나리의 우익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고 선취득점을 올렸 다.

요미우리 주포 알렉스 라미레스를 꽁꽁 묶은 세이부 배터리는 이 승엽마저 확실하게 봉쇄하겠다는 뜻을 4회에도 확실히 보여줬다.

호아시는 4회 선두였던 이승엽에게 볼 카운트 1-0에서 다시 몸쪽으로 시속 136㎞짜리 직구를 뿌렸다.

도쿄돔 요미우리 응원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. 흠칫 놀란 이승엽은 잠시 타석에서 벗어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으나 결국 변화구에 방망이가 헛돌면서 삼진으로 돌아섰다.

1-2로 끌려가던 5회 2사 2,3루에서는 의도적인 피하기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골랐고 2-2이던 7회 1사 2루에서는 세이 부 불펜의 핵 호시노 도모키에게 스탠딩 삼진으로 물러났다.

이승엽은 경기 전 세이부 좌투수를 넘고자 "몸쪽 공은 완전히 버리고 바깥쪽 공에 집중하겠다"고 말했지만 예상 밖으로 몸쪽에 바짝 붙는 빈볼성 위협구가 들어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.

특히 이승엽의 한 방을 두려워 한 세이부 마운드는 주자가 있으면 1,2차전에서는 피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이승엽이 타격감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.

세이부 마운드는 이날 7회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와 오미치 노리요시를 잇달아 몸 맞는 볼로 내보내 철저한 몸쪽 승부로 홈런군단 요미우리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.

무안타로 침묵 중인 이승엽이 4일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세이부 돔에서 열리는 일본시리즈 3-5차전에서 위협구를 딛고 시리즈 첫 안타와 홈런, 타점 등을 차례로 신고할지 주목된다.











핫뉴스 →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cany9900@yna.co.ki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11/02 21:51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		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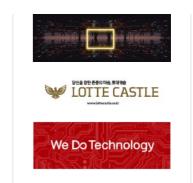
현장 영상 →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입-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□ 148 찰에 고발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⊕ 67 안 맞아"(종합)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☐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40 힐 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시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**광고**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 뉴스
 모바일 앱
 보다시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90.1229 | 발행일자 1990.12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

Yonhapnev